2024년 설날 가정예배 순서

묵도 요한삼서 1:2-4 *(묵도 중에 인도자가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신앙고백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송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1절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2절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3절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4절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 곳도 난 알 수 없도다

[후렴]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기 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대표로 할 수도 있고, 모든 가족이 한 두 문장씩 짧게 돌아가며 한 후에 인도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고 하여 기도를 마무리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봉독 시편 136:10-16

10.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1.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2.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3.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4.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5.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6.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말씀선포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는 동안 늘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시편 136편에는 광야에서의 모든 일이 감사의 고백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원망과 불평이 감사의 고백으로 변한 이유가 무엇일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1) 아픔도 돌아보면 감사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통이 다가오면 이것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고통스러운 현실에만 집중하다 보면 마치 눈앞의 어려움과 고통이 모든 것인 양 쉽게 절망하고 좌절에 빠집니다. 광야에서 척박한 시간을 넘어 존재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했던 이스라엘도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출애굽기에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불평이 잘 담겨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136편은 광야를 지난 후 그 모든 과정을 돌아보며 지은 시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간을 돌아보니 결론은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 때는 알지 못했었는데 자금까지 우리가 밟아온 모든 목마름과 갈등의 시간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부터 광야를 지날 때까지 모든 사건을 하나하나 나열하며 그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을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 띠우시는 분이십니다.(시 30:11) 오늘 우리의 아픔과 괴로움은 훗날 시편 136편과 같이 감사의 찬송이 될 것입니다.

2) 감사의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시편 136편에는 매절 같은 문구가 반복됩니다.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감사'의 근거가 '영원하신 인자'입니다. 이 '인자' 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영원한 사랑', '견고한 사랑'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결국 시편 기자가 모든 상황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에 대한 확신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와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신뢰함으로 감사가 풍성한 2024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처럼 올 한해는 모든 상황 속에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 136:1)

(기도하기 전에 서로 돌아가며 고백해보시기 바랍니다.)

기 도 인도자

찬 송 559장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잇고)*

1절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잇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2절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 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하니 한 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3절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후렴] 고마와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와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주기도 *(다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림으로써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2024년 설날 가정예배

여호와께 감사하라 <시편 136:10-16>

▣ 일 시 : 2024년 2월 10일(토)
▣ 장 소 : 각 가정의 적당한 곳

대한예수교 장로회 **순천중앙교회**